

‘KREI리포터’ 강원지회 간담회 결과

1. 개 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및 리포터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 일 시: 2017년 8월 30일(수) ~ 31일(목)
- 장 소: 낙산배농장(강원 양양군)
- 참 석: 총 17명
 - 강원지회 리포터(14명): 심호섭, 황운숙, 박현근, 변해동, 전병렬, 이진수, 신금영, 김남수, 변옥철, 송인숙, 최락철, 박정숙, 이윤희, 최무열
 - 연구원 관계자(3명): 미래정책연구실 조사동향팀 승준호 팀장, 박혜진 선임주무원,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30일	12:00~14:00	점심식사	통나무집
	14:00~16:00	견학	오색약수터
	16:00~17:00	회원 농가 방문	낙산배농장
	17:00~19:00	1차 간담회	강원지역 현장여론
	19:00~20:00	저녁식사	왕건횃집
	20:00~24:00	2차 간담회	가뭄, 최저임금 등 현장여론
31일	07:00~08:00	아침식사	감나무 식당
	08:00~	해산	

2. 주요 논의 내용

- 낙산배농장 소개
 - 박정숙: 남편과 함께 4,000여 평의 낙산배 과수원을 3대째 운영하고 있다. 80년이 넘는 할아버지 배나무도 과수원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 농장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소 배설물과 뽕짚을 자연 발효

시킨 퇴비를 사용해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지력을 높이는 친환경 과수재배를 인정받아 2006년에는 농림축산부에서 선정하는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 신지식농업인상을 받았다. 배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한 배와 도라지를 가공해 도라지배즙을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16년 후면 농장 100주년이 된다. 할아버지 배나무 아래 여러 주민을 초대해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낙산배 홍보와 우리농장의 전통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강원지역 농촌 현장여론

- 황윤숙: 곤충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확대로 점차 곤충 농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식용곤충은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축제용 풍선을 대신해 나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함평 나비축제에 나비를 납품해왔는데, 현재는 해당 지역의 것만 납품받도록 조치해 더 이상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강원지역의 다른 축제에 나비 활용을 부탁드렸는데 배추 등 농작물 병해가 있을 수 있다며 납품을 거부하였다. 이 나비는 제 사는 곳에 머무는 습성이 있어 멀리 날지 못한다고 설득해왔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 여러 지역축제에서 풍선이나 폭죽을 대신해 나비를 활용한다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곤충사업의 영세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박현근: 올해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으로 토마토 하우스에 차광도포를 하였다. 차광도포제는 하우스 온도를 낮추어주면서 광선은 투과해주는 역할이라 설명 들었는데, 오히려 광선은 차단되고 온도가 올라가서 이번 토마토는 열매를 맺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 결국 도포한 것을 도로 벗기는데 또 인력만 들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노루표가 공동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계절에 따른 조도 등 다방면으로 실험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
- 심호섭: 모든 농민이 알듯이 작년에 쌀값이 폭락했다. 그래서 변동직불금을 천만 원을 넘게 받았다. 쌀 전업농 중 일부는 1억 원 이상 받은

농가도 있다. 일단 받아서 좋기는 한데 앞으로 쌀 전업농이 변동직불금을 받으면 일 년 동안 휴경을 했으면 한다. 국가적으로 보면 재고로 남은 쌀을 줄일 수 있고 쌀값도 자연히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이진수: 토종별을 키우고 있는데 몇 년 전, 박테리아로 인해서 거의 토종별이 전멸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통에 20만 원 정도 하는 별통이 지금은 70만 원을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토종꿀 값이 오른 것은 아니다. 토종별이 겨울을 내려면 두되의 꿀이 필요한데 나오는 양은 한 되이다. 그래서 설탕을 먹이고 화분을 먹여서 늘리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이 상황이 지속이 될지 답이 없다. 토종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 송인숙: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농가경영장부 앱을 통해 3년째 이용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8월에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자료가 없어지고 영망이 되었다. 농촌진흥청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가 없다고 하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농민을 위해 만들어진 앱은 많다. 그런데 쓸 수 있는 앱은 없다. 그동안 만들어진 것을 점검해 없앨 것은 없애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 작업을 해야 한다.
- 박정숙: 해마다 9월 초면 태풍이 지나간다. 한해 7만5천개의 배를 수확하는데, 수확을 반도 못한 적도 있다. 때문에 요즘 조마조마한 마음이다. 무사히 9월이 지나기를 바라고 있다.
- 박현근: 이웃집 아주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는데, 직업이 '주부'로 되어 있어 보험 보상금액이 턱없이 적었다고 한다. 서류를 제출하면 농업인으로서 직업을 인정해주는지 하나, 중소기업 못지 않는 매출규모라 한들 보상금액을 매우 낮게 측정하고 있다. 매출액 등 다른 기준을 마련해 농업인의 보상금액을 조절해주어야 한다.

○ '가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현장여론

- 심호섭: 대규모의 관장을 뚫은 것보다 지역마다 소하천에 소형관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자체에서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료는 농민이 부담하게 하여 활용하면 좋겠다.

- 최무열: 오염원이 한번 들어가면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된다. 지표를 통해서 자연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지하수로 들어가는 암반을 뚫어서 관 대형관장에 대해서 관리해야 한다.
- 신금영: 우리 지역은 소형관정을 뚫어서 관수 시설을 다했다. 지하수로 직접 밭에 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관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다.
- 이진수: 대국민 절수 운동이 필요하다. 물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 '최저시급 인상 정책'에 대한 현장여론

- 송인숙: 농촌 인건비는 이미 최저 시급보다 많이 올라 있다. 그래도 일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없다.
- 심호섭: 우리 지역 망상해수욕장에서 여름이면 매번 일손부족으로 알바를 구하는데 사람이 없다. 고용하더라도 5일 일하고 이틀은 쉬고, 4대 보험도 들어주어야 하고 밥값 주고 최저시급에 +a로 주는 금액이 시간당 만원이 넘는다. 소상공인은 알바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 최무열: 얼마 전에 인력소에 사람을 부탁해서 10명이 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은 제대로 몸도 못 가눌 정도의 할머니였다. 사람이 없다 보니 고연령자를 끼워서 보낸다. 농촌에 일손부족은 매우 심각하다.
- 신금영: 3년 계약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다. 8시간 근무에 4대 보험가입, 숙소 및 식사 제공 등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외국인근로자가 오히려 흥정을 한다. 농산물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데 인건비는 자꾸 오르고 있다.
- 변해동: 이제 외국인 인건비에서 벗어나서 가족농 중심의 농사가 되어야 한다. 요즘 우리 동네는 동홍천 휴게소가 생겨서 사람들이 휴게소

로 출근을 해서 그나마 있던 인력도 줄었다.

- 박정숙: 농촌의 임금은 내년도 최저시급 보다도 높다. 그러나 일의 강도가 세니 비교적 일의 강도가 약한 요양보호사 등 일을 많이 한다.
- 심호섭: 농촌에서 낙농이나 축산업 말고는 일 년 내내 사람을 쓸 수 없다. 농번기 때 인력이 필요한 것이 농사이다. 일할 사람도 없는데 판매까지 해야 하니 갈수록 농업이 어렵다.
- 박현근: 공공근로를 없앴으면 한다. 농업에 일손이 모자란 실정인데 공공근로는 비교적 쉽고 일부 시간만 때우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더욱 농사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들을 농업에 활용해야 한다.

○ 강원지회 간담회 일정 계획

- 회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 다음 4분기 지역간담회는 10월 30일(월)~31일(화),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3. 이모저모

